

제1 교시

언어 영역

성명		수험번호					1		
----	--	------	--	--	--	--	---	--	--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사물은 그 효용을 잘 살피서 사용해야 한다.
- ②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큰 화를 당하기 쉽다.
- ③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 ④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적당한 경쟁자가 필요하다.
- 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가지고 대상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2. (물음) ㉠, ㉡에 들어갈 'A' 국가의 환경위기시각은?

세계의 환경위기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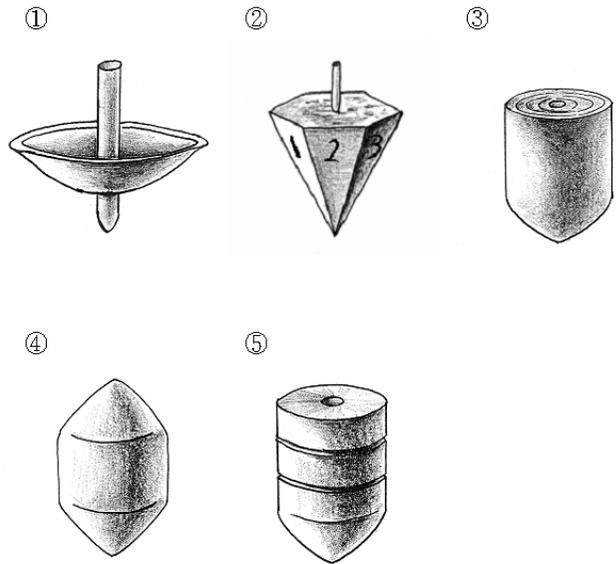
		
1992 7:49	2005 9:05	2006 9:17

'A' 국가의 환경위기시계

		
1992 7:38	2005 ㉠	2006 ㉡

- | | | |
|---|--------|--------|
| | ㉠ | ㉡ |
| ① | 8 : 47 | 8 : 55 |
| ② | 8 : 57 | 9 : 05 |
| ③ | 9 : 07 | 9 : 15 |
| ④ | 9 : 17 | 9 : 25 |
| ⑤ | 9 : 27 | 9 : 35 |

3. (물음) 이 강의에서 설명하지 않은 팽이는?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이 대답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 ①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의 이점
- ② 현금영수증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 ③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는 방법
- ④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
- 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자에 대한 대응책

5. (물음) 이 대답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답자는 구체적 통계 자료를 들어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대답자는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여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③ 진행자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 ④ 진행자는 대답자와는 다른 관점에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⑤ 진행자는 대답자의 답변에 의문을 제기하며 보충 설명을 유도하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바람직한 삶의 태도'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한다. 그림을 보고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겉모습이 변해도 본성에는 변함이 없는 것처럼 자신의 본분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해.
- ② 열매를 맺은 후에 잎을 떨어뜨리는 나무처럼 실패를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
- ③ 겨울 바람을 이겨낸 나무가 새싹을 틔우는 것처럼 시련에 굴하지 않는 강한 의지를 지녀야 해.
- ④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한 나무가 열매를 잘 맺는 것처럼 원하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
- ⑤ 새 잎을 틔우지 못한 나무는 무성해질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일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어 그 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

7. 교복 물려주기 행사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글을 쓰고자 한다. 글쓰기 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상 독자	• 졸업할 앞둔 3학년 학생
전략 수립	•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행사에 참여할 것을 주장함. ①
자료 수집	• 설문조사 - 교복 구입의 경제적 부담감 경험 유무 - 교복의 색상과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 ②
내용 선정	• 졸업 후 물려준 교복이 재학생들의 경제적 부담감을 줄여 준다. • 행사 참여로 기부의 가치를 알게 된다. ③ • 행사에 참여하는 선배들의 모습은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 학교의 아름다운 전통이 된다.
표현	•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득력 있게 서술한다. ④
조직	• '교복 물려주기'의 의의 소개 → 자료 제시 → 행사 참여 유도 ⑤

8. 다음 대화를 바탕으로 '즐겁게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 만들기'라는 주제의 글을 쓰기 위해 개요를 작성해 보았다. <보기>의 개요를 수정·보완하기 위해 검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어머니 : 오늘 박물관 견학은 어땠니?
 학생 : 그냥 그랬어요.
 어머니 : 왜? 재미없었니?
 학생 : 무척 기대하고 갔었는데, 막상 가보니 그저 그렇더라고요. 전시물 옆에 있는 설명은 너무 어려웠고, 안내문의 내용도 충분하지 않았고요. 그나마 안내 책자에는 제법 자세한 설명이 있던데, 너무 비싸니 사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유리 너머로 대충 보고 나왔어요.

< 보 기 >

I. 문제 제기

II. 문제점과 원인

1. 문제점
 가. 관람객 수가 점차 감소함. ㉠
 나. 관람객들이 박물관 관람에 흥미를 느끼지 못함.

2. 원인
 가. 박물관 관람 안내 서비스 부족 ㉡
 - 전시물에 대한 어려운 설명
 - 상세하지 못한 안내문
 나. 단조롭고 수동적인 관람 방법
 다. 이용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 유물 발굴 체험 프로그램
 - 가상 족장 회의 체험 프로그램

III. 해결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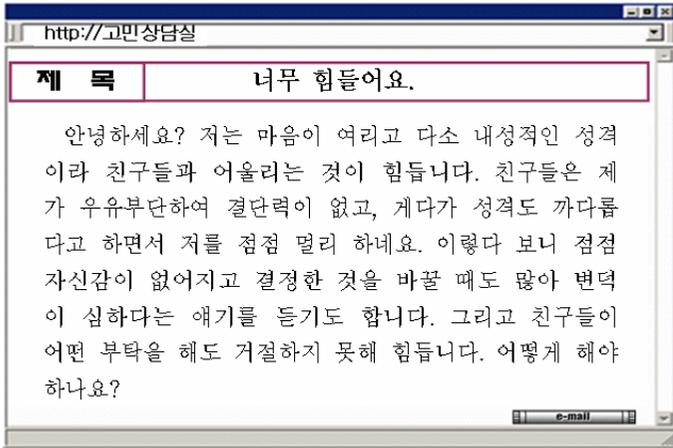
1. 관람 서비스 개선 ㉣
 가. 상세한 설명의 안내문 개발·보급
 나. 안내 책자의 무료 제공 또는 저가 판매

IV. 제언

- 이용객들의 역사 의식 각성 촉구 ㉤

- ① ㉠은 대화의 내용으로는 알 수 없으므로 삭제한다.
- ② ㉡은 하위 항목을 포괄할 수 있도록 '박물관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고친다.
- ③ ㉢은 논지 전개상 어색하므로 'Ⅲ. 해결 방안'의 하위 항목으로 이동한다.
- ④ ㉣의 하위 항목에 '다. 전시물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는 관람도우미 배치'를 추가한다.
- ⑤ ㉤은 글의 맥락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박물관을 즐겁게 이용하기 위한 서비스 개선 및 프로그램 마련 촉구'로 바꾼다.

9. 청소년 상담 기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어느 학생의 글이다. 학생과 다른 관점에서 용기를 주는 댓글을 쓰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우유부단하다는 것은 달리 생각하면 신중한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 ② 마음이 여리다는 것은 부드러운 심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 ③ 변덕이 심하다는 것은 오히려 밝고 명랑한 태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 ④ 성격이 까다롭다는 것은 달리 생각하면 꼼꼼하고 치밀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 ⑤ 친구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10. 학생의 편지글을 고쳐 쓴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선생님, 그 동안 ㉠안녕하셨어요?
 연둣빛 일사귀들이 초록으로 더욱 짙어가는 6월입니다.
 작년 이맘때 선생님과 함께 생활했던 기억이 ㉡떠올립니다.
 도시락도 먹고, 체육 대회 준비도 하던 소중한 추억들.....
 언제나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던 제가 선생님의 따스한 사랑을 ㉢받았지만 성실한 학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저는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며 활기차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대학 생활이 힘들 때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결코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하신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건강하세요.

- ① ㉠ : 높임법에 맞지 않으므로 '안녕하셨지요?'로 고친다.
- ② ㉡ :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떠올려 집니다'로 고친다.
- ③ ㉢ : 앞뒤 문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받았는데'로 바꾼다.
- ④ ㉣ :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고려하여 '절대로 희망을 가져야 한다'로 바꿔 쓴다.
- ⑤ ㉤ : 기본형인 '건강하다'는 명령형으로 활용할 수 없으므로 '건강하게 지내세요'로 바꾼다.

11.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 보 기 >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꾸며주어 그 의미를 분명히 해주는 문장성분이다. 부사어는 문장에서 위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지만 자리를 바꿀 수 없는 경우도 있다.

- ① 그녀가 갑자기 일어났다.
- ② 과연 그분은 위대한 정치가군요.
- ③ 내일은 꼭 만나는 것이 좋겠어요.
- ④ 그 유명한 영화를 뭇 봐서 아쉬워요.
- ⑤ 제발 비가 조금이라도 내리면 좋겠어요.

12. 혼동하기 쉬운 단어를 구별하여 사용한 예로 알맞은 것은?

- ①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가 소리를 질렀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그는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 ② [벼가 환참 무성하게 자란다.
그는 환창 나를 노려보더니 돌아서 가 버렸다.
- ③ [웬 까닭인지 몰라 어리둥절하다.
이야기를 듣자 웬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 ④ [시금치를 맛깔스럽게 문혀서 먹었다.
붓에 먹물을 듬뿍 무치고 글씨를 썼다.
- ⑤ [둘 사이의 친분이 두껍다.
추워서 옷을 두텁게 입었다.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말이 났으니 말이지 그 옷차림은 형제슈퍼의 심부름꾼 복장으로 딱 걸맞았다. 종일 의자에서 빈둥거리기도 지겨운지라 우리는 곧잘 가게 일도 마다않고 거들었다. 우리 둘이서 머리를 짜내어 하는 일이란 기껏 고무 호스로 가게 앞에 물을 뿌려 주는 정도였다. 포장이 덜된 가게 앞길의 먼지 제거를 위해서나 ㉠여름 땀별을 좀 무디게 하는 방법으로는 그 이상도 없어서 김 반장도 우리의 일을 기꺼이 바라봐 주곤, 일이 끝나면 기분이란 듯 요구르트 한 개씩을 던져 주기도 하였다.

그러다 차츰차츰 몽달 씨 몫의 일이 하나 둘 늘어 갔는데 가게 앞 청소나 빈 박스를 지하실 창고에 갠이는 일 혹은 막걸리 손님 심부름 따위가 그것으로, 몽달 씨가 거드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김 반장은 더욱 의젓해지고 몽달 씨는 자꾸 초라하게 비치는 게 나에겐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김 반장도 그걸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아주 정색을 하고서 몽달 씨 어깨를 짊 꺾던데니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다.

[A] “자네 같은 시인에게 이런 일만 시키려니 미안하이. 자네는 확실히 시인은 시인이야. 언제 바쁘지 않을 때는 정말이지 자네 시를 찬찬히 읽어 보세. 이래봬도 학교 다닐 때 위문 편지는 내가 도맡아 써 주곤 했던 실력이나니까.”
그러면 몽달 씨는 더욱 신이 나서 생선 잘라 주는 통나무 도마까지 깔끔히 씻어 내고 널부러져 있는 채소들을 다 들고 하면서 분주히 설치는 것이다.

(중략)

“야, 이 새끼! 이리 못 나와!”

가게 안으로 쫓아 들어가면서 소리치고 있는 사내는 빨간색의 소매 없는 러닝셔츠를 입고 있어서 땀에 번들거리는 어젯죽지가 엄청 우람하게 보였다.

“깡판 치기 전에 빨리 나오란 말야!”

가게 앞에 서서, 씩씩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마의 땀을 훔치고 있는 사내는 두 개의 옷저고리를 한 손에 거머쥐고 있었다. 그도 당연히 러닝셔츠 바람이었지만 소매도 달린, 점잖은 흰색이었으므로 빨간 셔츠에 비해 훨씬 온순하게 보였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나는 가게 옆구리의 샛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새 사내의 발길에 차여 버린 도망자가 바닥에 엎어져 있었고 ㉡김 반장이 만약을 위해 사내 주변의 맥주 박스를 방 안으로 져나르면서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김 형, 김 형…… 도와주세요.”

쓰러진 남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가느다랗게 흘러나온 것은 그 순간이었다. 그와 동시에 빨간 셔츠의 사내가 다시 쓰러진자의 등허리를 발로 짊 찍어 눌렀다.

“이 새끼, 아는 사이요? 그러면 당신도 한번 맛 좀 볼 텐가?”

맥주병을 거꾸로 쳐들고 빨간 셔츠가 소리 질렀다. 김 반장의 얼굴이 대번에 하얗게 질려 버렸다.

“무, 무슨 소리요? 난 몰라요! 상관없는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으니까 나가서들 하시오.”

그 때 바닥에 쓰러져 버둥거리던 남자가 간신히 몸을 비틀고 일어섰다. 코피로 범벅이 된 얼굴이 슬쩍 드러나 보였는데 세상에, 그는 몽달 씨임이 분명하였다. 그리고 보니 빛 바랜 바지와 물들인 균용 점퍼 밑에 노상 껴입고 다니던 우중충한

남방셔츠가 틀림없는 몽달 씨였다. 아까는 워낙 눈감쪽할 사이에 가게 안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얼굴을 볼 겨를이 없었다.

“이 짜식, 어디로 토끼는 거야! 너 같은 놈은 좀 맞아야 돼.”

흰 이를 드러내며 빨간 셔츠가 으르렁거렸다. 순간 몽달 씨가 텔레비전이 왕왕거리고 있는 가게방을 향해 튀었다. 방엔 따로이 바깥쪽으로 난 출입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몽달 씨보다 더 빠른 동작으로 방문을 가로막아 버린 사람이 있었다. 바로 김 반장이었다.

“나가요! 어서들 나가요! 싸우든가 말든가 장사 망치지 말고 어서 나가요!”

빨간 셔츠가 몽달 씨의 목덜미를 확 나꾸어챘다. 개처럼 질질 끌려 나오는 몽달 씨를 보더니 밖에 있던 흰 러닝셔츠가 짜익, 이빨 새로 침을 뱉아냈다. 두 사람 다 술기운이 벌겍게 오른, 번들거리는 눈자위가 징그러웠다.

㉢나는 재빨리 불빛이 닿지 않는 구석으로 몸을 피했다. 무섭고 또 무서웠다. 저렇게 질질 끌려 가는 몽달 씨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도무지 가슴이 떨려 숨도 크게 쉬지 못할 지경이었는데도 김 반장은 어지러진 가게를 치우면서 밝은 내다보지도 않았다.

두 명의 사내 중에서도 빨간 셔츠가 훨씬 악독한 게 사실이었다. 녀석은 몽달 씨의 머리칼을 한 움큼 휘어 감고서 마치 짐작을 부리듯이 몽달 씨를 다루고 있었다.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둥거리다가는 사내의 구둣발에 사정없이 정강이며 옆구리가 몽개어졌다. 지나가던 행인 몇 사람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구경꾼들이 보이자 빨간 셔츠가 당당하게 외쳐 댔다.

㉣“이 새끼, 너 같은 놈은 여지없이 경찰서로 넘겨야 해. 빨리 와!”

불 켜진 강남부동산 앞에서 몽달 씨가 최후의 발악을 벌여 놈의 손아귀에서 빠져 나왔다. 그러나 이내 녀석에게 머리칼을 붙잡히면서 부동산 옆의 시멘트 기둥에 뒤통 머리를 받쳤다. 쿵. 몽달 씨의 머리통이 깨져 나가는 듯한 소리에 나는 눈을 감아 버렸다.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행복사진관과 원미지물포만 지나고 나면 또다시 불빛도 없는 공터가 나올 것이므로 몽달 씨를 구해낼 시기는 지금밖에 없다. 몽달 씨가 악착같이 불 켜진 가게 쪽으로만 몸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길 이쪽은 텅 비어 있었다. ㉤몇몇 사람들이 있기는 하였지만 그들은 선불리 끼어들지 않고서 당하는 몽달 씨의 처참한 꼴에 혀만 꼰꼰 차고 있었다.

- 양귀자, 「원미동 시인」 -

13. [A]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작품 안에 위치한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 ② 작품 밖에 위치한 서술자가 작품 속 인물들의 행위를 그려내고 있다.
- ③ 작품 안에 위치한 서술자가 등장 인물의 행위와 사건을 관찰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④ 작품 안에 위치한 서술자가 의식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작품 속 인물들의 생각과 행위를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14.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기 1 > —

이 작품은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는 인물을 통해 현대인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 < 보기 2 > —

• 위 글에 이어질 내용 상상하기

‘빨간 셔츠’가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서로 가자고 함.
 → ‘나’는 ‘지물포 아저씨’에게 도움을 요청함.
 → ‘지물포 아저씨’의 도움으로 사내들을 몰아냄.
 → 사내들이 도망친 후에 ‘김 반장’이 나서면서 ‘몽달 씨’에게 “_____”(이)라고 말함.

- ① 참 잘된 일이야. 자네도 기쁘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네.
- ② 그렇게 고생하더니 일이 잘 되었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지 않나.
- ③ 여보게, 진작 내 말을 들었으면 되었을 것을……. 남의 충고도 때로는 들어주는 것이 예의라네.
- ④ 자네가 저놈들과 친구라는 게 믿기지가 않네. 친구는 가려서 사귀어야 하는 건데……. 자네 정말 안 됐군.
- ⑤ 저놈들을 잡아 넘겼어야 하는 건데……. 좀 어때? 이게 무슨 꼴인가. 어서 집으로 가세. 내가 데려다 줄게.

1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무더위를 식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 ② ㉡ : 맥주병이 깨져 사람이 다칠 것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이다.
- ③ ㉢ : 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무기력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 주변을 의식하여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의도이다.
- ⑤ ㉤ : 현대인들의 이기적이고 비정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6. 위 글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려고 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몽달 씨’의 의상은 추레하고 허름한 차림으로 준비한다.
- ② ‘빨간 셔츠’는 건장하고 험상 궂은 인상의 배우로 선정한다.
- ③ ‘형제슈퍼’에는 생활용품을 비롯한 생선, 채소 등을 두루 갖추도록 한다.
- ④ ‘몽달 씨’가 쓴 시를 읽으며 감탄사를 연발하는 ‘김 반장’의 모습을 클로즈업한다.
- ⑤ 폭행 당하는 ‘몽달 씨’의 모습과 무표정한 얼굴로 가게를 치우는 ‘김 반장’의 모습을 번갈아가며 보여준다.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세금이란 정부 또는 지방 정부가 수입을 얻기 위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즉, 세금은 정부가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재를 공급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가계나 기업의 소득을 가져가는 부(富)의 강제 이전(移轉)인 것이다.

납세자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재정 활동, 즉 각종 공공 시설, 보건 의료, 복지 및 후생 등의 편익에 대해서 더 큰 혜택을 원한다. 그러나 공공 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세금을 더 많이 내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보기 드물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시민 혁명이나 민중 봉기 등의 배경에는 정부의 과도한 세금 징수도 하나의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대에도 정부가 세금을 인상하여 어떤 재정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국민들은 자신들에게 별로 혜택이 없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납세 거부 운동을 펼치거나 정치적 선택으로 조세 저항을 표출하기도 한다. 그래서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원활한 재정 활동을 위한 조세 정책에 골몰하고 있다.

경제학의 시조인 아담 스미스를 비롯한 많은 경제학자들이 제시하는 바람직한 조세 원칙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평과 효율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공평의 원칙이란 특권 계급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효율의 원칙이란 정부가 효율적인 제도로 세금을 과세해야 하며 납세자들로부터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징세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조세 원칙을 설명하려 할 때 프랑스 루이 14세 때의 재상 콜베르의 주장을 대표적으로 인용한다. 콜베르는 가장 바람직한 조세의 원칙은 거위의 털을 뽑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즉, ㉢거위가 소리를 가장 적게 지르게 하면서 털을 가장 많이 뽑는 것이 가장 훌륭한 조세 원칙이라는 것이다.

거위의 깃털을 뽑는 과정에서 거위를 함부로 다루면 거위는 소리를 지르거나 달아나 버릴 것이다. 동일한 세금을 거두더라도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는 것 자체가 불편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 어떤 거위도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깃털

을 뽑아야 한다. 이것은 모든 납세자들에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신용 카드 영수증 복권 제도나 현금 카드 제도 등도 공평한 과세를 위해서이다.

더불어 거위 각각의 상태를 감안하여 깃털을 뽑아야 한다. 만일 약하고 병든 거위에게서 건강한 거위와 동일한 수의 깃털을 뽑게 되면 약하고 병든 거위들의 불평·불만이 생길 것이다. 더 나아가 거위의 깃털을 무리하게 뽑을 경우 거위는 죽고 결국에는 깃털을 생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17. 위 글을 바탕으로 강연회를 개최하기 위해 안내문을 작성하려고 한다. ㉔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주 제 : ㉔

▷ 주 최 : ○○ 고등학교 학생회

▷ 장 소 : ○○ 고등학교 3층 대회의실

▷ 일 시 : 2007년 6월 ○일

- ① 바람직한 조세의 원칙
- ② 납세자의 올바른 자세
- ③ 효율적인 정부의 구조
- ④ 세금의 정확한 의미
- ⑤ 납세 의무의 역사

18. 위 글을 읽고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납세자들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세금이 부과되어야 함. ①
- 대다수의 국민들은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받기 위해 세금을 많이 내려고 함. ②
- 무리한 세금 부과는 국민과 국가를 모두 힘들게 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함. ③
- 정부는 납세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징수하여야 함. ④
- 공평의 조세 원칙에 따르면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담해야 함. ⑤

19. <보기>의 관점에서 ㉕을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정부의 재정 활동에서 세입과 세출은 서로 일치해야 한다. 만일 국민 경제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시기에 세입이 세출보다 많았다면, 이는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거두어들여 국민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 ① 자유주의 경제 아래서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시장 경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 ② 정부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③ 정부는 국민이 내는 세금을 생활 보호, 의료비, 연금 등의 사회 보장 분야에 써야 한다.
- ④ 한 나라의 경제가 착실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운영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 ⑤ 정부는 사전에 필요한 경비를 정확히 예측하여 필요한 만큼만 세금을 걷어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20. 의미 관계가 ㉖ : ㉗와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 ① 컴퓨터를 사용한 후에 반드시 전원을 꺼야 한다.
- ② 관객이 늘어남에 따라 크기가 점차 대형화되었다.
- ③ 자전거 타이어는 여름에 팽창하고 겨울에 수축한다.
- ④ 먼 바다에 나가기 위해서는 배를 먼저 수리해야 한다.
- ⑤ 얇게 뜯은 김은 부드럽고 맛이 좋아서 높은 값에 팔린다.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화석 연료에만 의존한 에너지 사용은 국가 간의 분쟁뿐 아니라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를 일으킨다. 지금 지구는 화석 연료로부터 배출된 온실 가스로 인한 온난화 현상으로 골치를 썩고 있으며 기상 이변도 해마다 늘어나 그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다. 따라서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며 머지않아 고갈될 것으로 추정되는 화석 연료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미래의 후손을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무언가 화석 연료를 대신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원자력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위험할 뿐만 아니라 역시 연젠가는 고갈되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에는 430개 정도의 원자료가 있다. 이것이 1,000개로 늘어나면 우리나라의 사용 연한은 이에 반비례해서 줄어든다.

그렇다면 고갈되지 않고 기후 변화도 일으키지 않으며 안전한 에너지 자원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태양열이나 바람과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원이다. 재생 가능 에너지는 대체 에너지와는 다르다. 어떤 에너지원을 대신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이용한다면, 우리나라가 대체 에너지원이 된다. 또 석유 대신 쓰레기를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다면 쓰레기가 대체 에너지원이 된다. 미국에서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가 완공될 때까지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던 중유도 우리나라를 대신한다는 의미에서는 대체 에너지원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우리나라나 쓰레기는 쓰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재생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것들과 달리 재생 가능 에너지원은 사용해도 없어지지 않고 다시 생겨난다. 태양열은 태양이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 풍력도 지구 상에서 바람이 부는 동안은 끊임없이 생겨난다. 이렇게 한 번 쓰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든지 계속 쓸 수 있는 것을 '재생 가능 에너지원'이라고 한다. 재생 가능 에너지원은 고갈되지도 않지만 기후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 태양열, 바람, 지열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원은 이산화탄소를 내놓지 않고, 따라서 기후 변화도 유발하지 않는다.

재생 가능 에너지원은 지구상에 끝없이 존재한다. 태양에서 1년 동안 지구로 오는 태양열은 인류가 1년 간 사용하는 에너지의 1만 배 가량이나 된다. 사하라 사막에는 1년에 1㎡ 당 약 2,100kWh(킬로와트시)의 햇빛이 내리쬐는데, 전 세계 인류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는 사하라 사막 4만km²에 비치는 햇빛이 담고 있는 태양 에너지와 같은 양이다. 우리가 이 에너지원의 10%만을 열이나 전기 에너지의 형태로 바꾸어 사용한다 해도, 인류 전체에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데 필요한 사하라 사막의 면적은 약 40만km²가 된다. 즉, 재생 가능 에너지원은 충분히 존재한다.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은 현재 아주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다. 햇빛으로 전기를 만드는 태양광 발전 기술과 햇빛을 이용해서 난방열과 온수를 만드는 태양열 집열판 기술, 바람으로 전기를 만드는 풍력 발전 기술과 소수력 발전 기술은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지열(地熱)과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전기와 난방열을 얻는 기술이 개발되어 퍼져 가고 있다.

화석 연료가 완전히 고갈되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변이 극심해지는 시점에는 에너지 전환이 완결되어야 한다. 그 시점은 앞으로 약 50년 후가 될 터인데, 그때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을 크게 늘리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 * 소수력 발전 (小水力發電) : 산간벽지의 작은 하천이나 폭포수를 이용하여 낙차의 원리로 전기를 일으키는 일.
- * 바이오매스 (biomass) : 에너지 자원으로 이용되는 식물체 및 동물 폐기물.

21. 위 글을 신문 기사화할 때,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너지 고갈
 - 원자력이 유력한 대안
- ② 대체 에너지의 한계
 - 에너지 절약만이 살 길
- ③ 에너지의 오늘과 내일
 - 화석 연료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로
- ④ 에너지의 근원인 바람
 - 바람을 이용한 신개념 에너지 개발
- ⑤ 심각한 기후 변화
 - 지구 온난화 현상, 시급히 해결해야

22. 위 글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은?

- ① 화석 연료와 원자력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② 대체 에너지와 재생 가능 에너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③ 재생 가능 에너지는 현재 인류가 사용할 만큼 충분한가?
- ④ 미래 사회에서 예상되는 에너지 소비량은 어느 정도인가?
- ⑤ 재생 가능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은 개발되어 있는가?

23. 위 글을 읽은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후손을 위해 화석 연료 사용량을 줄여야겠군.
- ② 에너지 문제가 국가 간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군.
- ③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우리나라만의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군.
- ④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필요하군.
- ⑤ 무심하게 지나치던 자연 현상 중에서도 훌륭한 에너지 자원을 찾을 수 있겠군.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테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山脈)들이
바다를 연모(戀慕)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犯)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光陰)을
부지런한 계절(季節)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나리고
매화 향기(梅花香氣)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
백마(白馬) 타고 오는 초인(超人)이 있어
이 광야(曠野)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 이육사, 「광야(曠野)」 -

(나)

① 깊은 곳에서 네가 나의 뿌리였을 때
나는 막 갈구어진 연한 흙이어서
너를 잘 기억할 수 있다
네 숨결 처음 대이던 그 자리에 더운 김이 오르고
맑은 피 뱉아 네게 흘려보내며 즐거움에 떨던
아 나의 사랑을

먼우물* 앞에서도 목마르던 나의 뿌리여
나를 뚫고 오르렴,
눈부셔 잘 부스러지는 살이니

내 밝은 피에 즐겁게 발 적시며 뻗어가려무나

척추를 휘어 접고 더 넓게 뻗으면
그때마다 나는 착한 그릇이 되어 너를 감싸고,
불꽃같은 바람이 가슴을 두드려 세워도
네 뻗어가는 끝을 하냥 축복하는 나는
어리석고도 온밀한 기쁨을 가졌으랴

네가 타고 내려올수록
단단해지는 나의 살을 보아라
이제 거무스레 늙었으니
② 슬픔만 한 두릅 껍어 있는 꺾데기의
마지막 잔을 마셔다오

깊은 곳에서 네가 나의 뿌리였을 때
내 가슴에 끓어오르던 벌레들,

그러나 지금은 하나의 빈 그릇,
너의 푸른 줄기 솟아 햇살에 반짝이면
③ 나는 어느 산비탈 연한 흙으로 일구어지고 있을 테니

- 나희덕, 「뿌리에게」 -

* 먼우물 : 먹을 수 있는 우물물.

(다)

여명(黎明)의 종이 울린다.
새벽 별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같이 산다.
닭이 운다. 개가 짖는다.
오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이 있다.

④ 오는 사람이 내게로 오고
가는 사람이 다 내게서 간다.

아픔에 하늘이 무너졌다.
깨진 하늘이 아물 때에도
가슴에 빠져 서지 못해서
푸른 빛은 장마에
넘쳐 흐르는 흐린 강물 위에 떠서 황야에 갔다.

나는 무너지는 독에 혼자 섰다.
⑤ 기슭에는 채송화가 무더기로 피어서
생의 감각을 흔들어 주었다.

- 김광섭, 「생(生)의 감각」 -

24.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다)는 객관적 입장에서 대상을 관찰하고 있다.
- ② (가)~(다)는 격정적인 어조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 ③ (가), (나)는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가 나타나 있다.
- ④ (가), (다)는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을 표현하고 있다.
- ⑤ (나), (다)는 명령형 어미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25. <보기>의 관점에 따라 (가)를 감상한 것은?

< 보 기 >

문학 작품은 현실을 모방하고 반영하기 때문에 독자는 작품 속 현실과 실제 현실 사이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고 작품을 감상해야 한다.

- ① 3연에는 시간의 흐름을 시각화한 표현이 드러나 있어.
- ② 시행을 규칙적으로 배열하여 형태적 안정감을 얻고 있어.
- ③ 조금만 힘들어도 쉽게 좌절하는 우리의 삶을 반성하게 해.
- ④ 작품의 어조로 보아 시인은 강인한 의지를 지닌 사람이야.
- ⑤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 어려운 시대 상황을 암시하고 있어.

2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시적 화자와 대상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 : 시적 화자의 정서를 구체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 ③ ㉢ : 더 이상 쓸모없어 버려진 자신의 운명을 표현하고 있다.
- ④ ㉣ : 내가 있어야만 비로소 세상도 의미가 있다는 깨달음을 나타낸다.
- ⑤ ㉣ : 새로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27. (나)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태도가 가장 잘 형상화된 것은?

- ① 살구꽃 떨어지는 살구나무 아래로 / 물을 길어 오는 그 여자
물동이 속에 / 꽃잎이 떨어지면 꽃잎이 일으킨 물결처럼 가
닿고 / 싶은 집
- 김용택, 「그 여자네 집」 -
- ② 싸락눈을 밟고 골목을 걷는다 / 큰길을 건너 산동네에 오른
다 / 습기 찬 판장 소란스런 문소리 / 가난은 좀체 벗어지지
않고 / 산다는 일의 고통스러운 몸부림
- 신경림, 「까치소리」 -
- ③ 내 고장 칠월은 / 청포도가 익어 가는 시절 // 이 마을 전설
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 먼 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
와 박혀 //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 이육사, 「청포도」 -
- ④ 가을은 점차 쓸쓸히 깊어 가는데. / 기어서 거실을 통과했을
까, / 아니면 날아서? / 아무도 없는 낮 시간에 그가 열린 베
란다 문턱을 넘어 / 천천히 걸어 거실을 건넌으리라 상상해
본다.
- 황동규, 「귀뚜라미」 -
- ⑤ 어두운 방 안엔 / 빠알간 숯불이 피고, // 외로이 늙으신 할
머니가 / 애처로이 잤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
이윽고 눈 속을 /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 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 그 붉은 산수유 열매—
- 김종길, 「성탄제」 -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도대체 우리는 역사를 왜 배울까? 역사를 배우면 현명해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까? 역사를 배워야 한다는 몇몇 주장을 ㉠살펴보면서, 이 문제에 대하여 고민해 보자.

첫 번째로 ㉠역사는 흥미와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배워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과연 이런 주장이 지금도 설득력이 있을까?

물론 지금도 역사를 배우며 흥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흥미만을, 즐거움만을 위해서라면 꼭 역사를 ㉡배워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흥미와 즐거움만을 위한다면, 요즘 세상에 역사보다 재미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역사를 배우는 데는 분명히 단순한 흥미와 즐거움 이상의 무엇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역사는 진실을 전하고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는 역사의 수많은 사례를 접함으로써 다양한 삶을 사는 인간들의 모습을 이해하고, 인간사에 대한 상상력과 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으리라는 주장이다. 과연 과거의 방대한 사실들을 많이 접하게 되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까?

불행하게도 인간들은 과거의 사실을 알면 알수록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대립하는 민족 간의 갈등이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역사적인 지식이 주는 해악일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과거를 아는 것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모든 지식은 과거로부터 왔다. 과거의 지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결국 과거의 지식은 대부분의 경우 삶에 도움을 주고 있다. 다만, 과거의 지식으로부터 교훈을 얻으려는 인간들이 때때로 오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세 번째로 역사가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사람들이 공통의 과거를 가지게 됨으로써 동류 의식, 동질 의식을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 서로 협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제일 동포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심한 분노를 느낄 것이다. 이것은 같은 과거를 가지게 됨으로써 느끼는 동류 의식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만으로 역사 교육이 행해진다면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하고 자민족 중심주의에 빠지기 ㉤쉽다. 또한 정치가들이나 여타의 사회 세력에 의해 역사가 왜곡될 소지도 있다.

마지막으로 역사를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역사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역사 의식이란 역사 인식에 토대를 둔 고찰과 판단, 그리고 역사적 비판 의식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 의식을 키우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고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역사적 사고력이란 역사가들이 역사를 연구할 때 사용하는 사고 방법으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사회 구조 속에서 파악하고, 증거에 입각하여 과거의 역사상을 재구성하는 방법이다. 결국 역사가들의 역사 연구 방법을 학습자가 습득함으로써, 역사 의식을 형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역사 교육의 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최근 들어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그 효용과 정당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28. 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을 묶은 것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ㄱ. 묻고 답하는 형식을 사용하여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ㄴ. 기존의 견해를 강하게 비판한 후,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ㄷ. 다양한 견해를 제시한 후 각각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
 ㄹ.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하여 일반적 이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9. ㉠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상식이나 상상이란 면에서, 어떤 즐거움도 역사와 비교될 수 없다. - 데이비드 흄
 ② 역사가는 가능한 한 자신을 숨기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한다. - 랑케
 ③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유일한 교훈은 배울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 헤겔
 ④ 역사의 중요한 기능은 선은 상을 받고 악은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 토마스 홉스
 ⑤ 역사가의 주임무는 당시의 행위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생각하고, 그 행위자의 사상을 알아내는 것이다. - 콜링우드

30. ㉠~㉣를 바꾸어 쓴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성찰(省察)하면서 ② ㉡ : 학습(學習)해야
 ③ ㉢ : 허다(許多)하다 ④ ㉣ : 용이(容易)하게
 ⑤ ㉤ : 십상(十常)이다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웅진골 웅당촌이라는 곳에 웅고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성격이 과격하고 욕심이 많으며 심술쟁이에 고집불통이었다. 그는 자신의 욕심과 고집 때문에 자신의 노모까지도 심하게 학대하였다. 하루는 월출봉 취암사의 도사가 웅고집을 책망하기 위하여 학 대사를 웅고집의 집으로 보냈으나 매만 맞고 돌아왔다. 이에 학 대사는 벗집으로 가짜 웅고집을 만들었다. 가짜 웅고집은 웅고집의 집에 가서 진짜 웅고집인 척한다.

두 웅가가 이 말을 옮겨 여겨, 서로 잡고 관청에 달려가서 송사를 아뢰었다. 사또가 나왔으며 두 웅가를 살펴건대, 얼굴도 같고 의복도 같고 머리, 가슴, 팔뚝까지 같았으니, 그 진위를 뉘라서 가리리요.

진짜 웅가가 먼저 아뢰기를,
 “저희 조상 대대로 웅당촌에 사옵는데, 천만의외로 생면부지 모를 자가 저와 행색 같이하고 태연히 들어와서, 저의 집을 자기 집이라 하며 저의 가솔을 자기 가솔이라 이르으니 세상에 이런 변괴 어디 또 있나이까? 사리 밝으신 사또께서 밝혀 주시옵소서.”

가짜 웅가가 또한 아뢰기를,
 “제가 아뢰고자 하던 것을 저 놈이 다 아뢰매 저는 다시 아뢴 말씀 없사오니, 명철하신 사또께서 살살이 살펴서와 진실을 밝혀 주시면,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나이다.”

사또가 엄히 꾸짖어 두 웅가를 함구케 한 연후에 육방의 아전과 내빈 행객 불러내어 두 웅가를 살펴보게 하였으나, 진짜 웅가가 가짜 웅가 같고, 가짜 웅가가 진짜 웅가 같아 전혀 알 수 없는지라. 형방이 아뢰기를,

“두 백성의 호적(戶籍)을 상고하여 보사이다.”
 사또는,
 “허허, 그 말이 옳다” 하고 호적을 맡아 보는 관리를 불러 놓고, 양옹의 호적을 강(講) 받을 제, 진짜 웅가가 나왔으며 아뢰기를,
 “민(民)의 아버 이름은 웅송이웁고 할아버지는 만송이웁니다.”

[B] 사또가 이 말을 듣고 하는 말이,
 “허허, 그 놈 호적은 웅송망송하여 전혀 알 수 없으니, 다 음 백성 아뢰라.”

이때 가짜 웅가가 나왔으며 아뢰기를,
 “자하골 김동네 좌정하였을 적에, 제 아버 좌수로 거행하며 백성을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푼 공으로 말미암아 온갖 부역을 삭감하였기로 관내에 유명하오니, 웅돌면 제일호 유생 웅고집이요, 제 나이 삼십칠이요, 부학생(父學生)*은 웅송이 온데 절충장군(折衝將軍)*이웁고, 할아버지는 만송이오니 오위장(五衛將)* 지내웁고, 고조할아버지는 맹송이요, 본은 해주이오며, 처는 진주 최씨요, 아들놈은 골이온데 나이는 십구 세 무인생(戊寅生)이요, 하인으로 천비 소생 돌쇠가 있소이다. 또, 제 세간을 아뢰오면 논밭 곡식 합하여 이천백 석이요, 마굿간에 기마가 여섯 필이요, 암수돼지 합하여 스물두 마리요, 암탉 수탉 합이 육십 수요, 기물 등속으로 안성 방자유기 열 필이요, 앞단이 반닫이에, 이층장, 화류문갑, 용장, 봉장, 산수병풍, 연병풍 다 있사웁고, 모란 그린 병풍 한 벌은 제 자식 신혼 시에 매화 그린 폭이 없어서 고치고자 다락에 따로 없어 두었사오니 그것으로도 아옵시고, (중략)

진 신, 마른 신이 석 죽이요, 쌍코 즐변자가 여섯 켄레 중에 한 켄레는 이 달 초사흘 밤에 쥐가 코를 갇아먹어 신지 못 하옵고 안 벽장에 넣었으니, 이것도 염문하와 하나라도 틀리 오면 곤장 맞고 죽사와도 할 말이 없사오나, 저 놈이 저희 집 세간 이렇듯이 넉넉함을 얻어 듣고, 욕심내어 송정(訟庭)* 요란케 하오니, 저렇듯 무도한 놈을 처치하사 타인을 경계하옵소서.”

사또가 듣기를 다 하더니 이르기를,

㉠“그 백성이 진짜 웅 좌수라.”

하고 당상에 올려 앉히며 기생을 불러들이더니,

“이 양반께 술을 권하여라.”고 하였다.

흥이 나는 웅 좌수가 술잔을 받아들고 화답하여 하는 말이, “하마터면 아까운 세간을 저 놈한테 빼앗기고 이러한 일등 미색의 이렇듯 맛난 술을 못 먹을 뻔하였구나! 그러나 사또께서 흑백을 가려 주시니, 그 은혜는 백골난망이옵니다. 시간을 내시어 한 차례 저희 집에 나오시오. 막걸리로 한 잔 대접하오리다.”

“그는 염려 말게. 처치하여 줘세.”

틀 아래 꿇어앉은 진짜 웅가를 불러 분부하되,

“네 놈은 흉측한 인간으로서, 음흉한 뜻을 두고 남의 세간 탈취코자 하였으니, 죄상인즉 마땅히 법률에 의해 귀양을 보내야 할 것이로되, 가버이 처벌하니 바빠 끌어내어 물리쳐라.”

곤장 삼십 대를 매우 치며, 죄목을 엄히 문초하되,

“네 이 놈! 차후에도 웅가라 하겠느냐?”

진짜 웅가가 곰곰이 생각전대, 만일 다시 웅가라 우길진대 필시 곤장 밑에 죽겠기에,

“예, 웅가가 아니오니 처분대로 하옵소서.”

아전이 호령하기를

“저 놈을 담장 밖으로 내치거라.”

- 「웅고집전」 -

* 부학생 : 돌아가신 아버지. * 절충장군 : 정3품의 무관.
* 오위장 : 종2품의 무관. * 송정 : 옛날에 송사를 처리하던 곳.

31. 위 글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관청에서는 백성들의 호적을 관리하고 있었다.
- ② 형방은 사또를 보좌하는 참모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 ③ 사람들은 진짜 웅가와 가짜 웅가를 구분할 수 없었다.
- ④ 관청에 가서 진위를 가리도록 충고한 누군가가 있었다.
- ⑤ 진짜 웅가는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는 강인한 성격을 지녔다.

32. [A]를 <보기>와 같이 바꾸어 썼을 때 나타나는 차이점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두 웅가가 각기 나서서 자신이 진짜라고 주장하며 흑백을 가려 주기를 사또에게 청하더라.

- ① 공간적 배경을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다.
- ② 말하기 방식으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등장 인물의 말과 행동을 직접 보여주고 있다.
- ④ 과거를 회상하여 사건의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
- ⑤ 상황을 상세히 묘사하여 선명한 인상을 주고 있다.

33.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참고할 때, [B]와 같은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 보 기 >

우리말에는 언어의 특성을 이용해서 유희적인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언어유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구현되는데, 동일한 소리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경우, 동음어나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하는 경우, 말꼬리를 이어 연결하는 경우, 말의 순서를 바꾸는 경우, 의성어나 의태어를 활용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① 어,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단아라. 물 마른다, 목 들여라.
- ② 개질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를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 ③ 귀 먹어서 삼 년이요, 눈 어두워 삼 년이요, 말 못해서 삼 년이요, 석삼 년을 살고 나니
- ④ 그래서 말뚝을 뽕뽕 돌려서 박고 띠를 두르고 문은 하늘로 뻗다. 그것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로구나.
- ⑤ 이 골 물이 주루루룩, 저 골 물이 쌀쌀, 열에 열 골 물이 한데 합수하여 천방져 지방져 소쿠라지고 평퍼져

34. ‘사또’가 ㉠과 같이 판단한 이유로 적절한 것은?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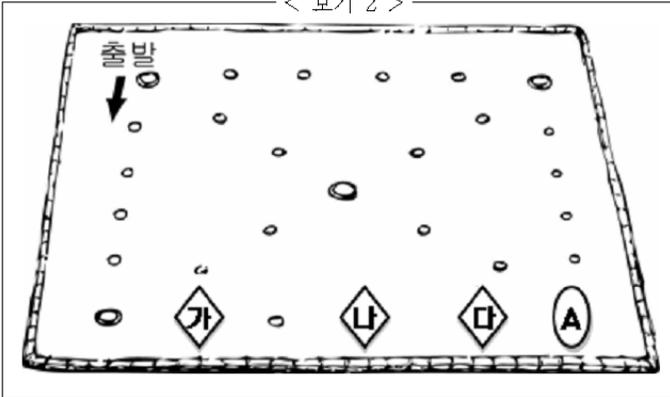
- ① 집안의 사정을 자세하게 진술해서
- ② 대대로 내려오는 명문 귀족 출신이어서
- ③ 인근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서
- ④ 송사가 끝난 후에 보답할 것을 약속해서
- ⑤ 욕심이 많았던 자신의 삶에 대하여 반성해서

38.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 1>의 조건을 지키면서 <보기 2>의 '가, 나, 다'의 위치에서 A를 잡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보기 1 >

- 한 번만 던지도록 하며, 1점에 한 칸씩 이동한다.
- '잡는다'의 의미는 A의 위치에 도달하는 것이다.

< 보기 2 >



- ① 걸이 나오면 A를 잡을 수 없다.
- ② '나' 말은 '다' 말보다 A를 잡을 확률이 높다.
- ③ '가' 말은 세 말 중에서 A를 잡을 확률이 가장 낮다.
- ④ '가', '나', '다'의 말이 A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의 합은 잡지 못할 확률보다 높다.
- ⑤ '나' 말로 A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가'와 '다' 두 개의 말로 잡을 수 있는 확률의 합보다 낮다.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 사람들은 에밀레종을 단순한 역사 유물로 생각하지만, 이미 많은 음향 공학자가 에밀레종이 세계적으로 탁월한 음향 기구임을 입증하는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에밀레종 소리를 잘 감상하기 위해서는 '맥놀이'라는 현상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맥놀이(beat)는 진동수가 거의 비슷한 2개의 음파가 간섭할 때 소리가 주기적으로 세어졌다 약해졌다 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100Hz와 120Hz의 음을 따로 듣는다고 가정해 보자. 두 음의 차이를 거의 구분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두 음을 동시에 들으면 어떨까? 20Hz의 맥놀이 파가 발생해서 0.05초마다 한 번씩 웅웅거리는 소리가 난다.

이런 맥놀이 현상은 의외로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음악의 도시 비엔나에서는 악기 조율사들을 위해 자동 전화로 '라' 음(440Hz)을 제공한다. 악기의 소리가 440Hz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 차이만큼 맥놀이 파가 발생하기 때문에 맥놀이 음이 들리지 않을 때까지 악기를 튠닝하면 된다.

맥놀이 현상은 단순히 피아노나 바이올린 등의 악기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악기로 따진다면 에밀레종 역시 훌륭한 개성을 지닌 악기이다. 기본적으로 종은 타악기이므로 타종 후 악기의 떨림이 소리로 바뀐다. 그렇다면 과연 에밀레종처럼 거

대한 종도 떨릴까? 컴퓨터로 분석해 보면 첫 타종 후 에밀레종 소리에서 다양한 모드의 소리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타종 직후 소리 성분의 변화를 살펴보자. 타종 직후 첫 소리에는 저주파에서 고주파까지 다양한 주파수를 가진 음파들이 공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다 각 소리의 진동 에너지가 공기와의 마찰로 소모되면 소리가 소멸하는데, 이 소멸하기까지의 시간이 주파수마다 다르다. 고주파의 음들이 빨리 소멸하는 데 비해 저주파의 음들은 천천히 소멸하여, 9초가 지나면 대부분의 고주파 음들은 사라지고 저주파 음들만 남는다. 그중에서 64Hz의 음파 168Hz의 음이 비교적 또렷이 들린다.

여기서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64Hz의 음이지만, 에밀레종 소리의 대표음은 168Hz의 음이다. 이 음을 좀 더 자세히 들여보면 168.52Hz와 168.63Hz의 음으로 분리된다. 이 두 음이 간섭 현상을 일으켜 두 음의 차이 0.11Hz, 즉 9초에 한 번씩 맥놀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에밀레종 소리가 웅웅거리는 소리처럼 들리는 것은 현대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 현상인 것이다.

에밀레종에는 이 외에도 최상의 소리를 내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잡음을 제거하는 필터 역할을 하는 음관이 있고, 맥놀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종의 표면에 여러 가지 장식을 해 놓았다. 종 밑에 파놓은 흡구멍이는 공명이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러한 여러 장치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에밀레종은 우리 민족의 과학 기술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유물이다.

* Hz(헤르츠) : 진동수의 단위. 1초 동안의 진동 횟수.

39. 위 글의 내용으로 볼 때, 맞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기 >

- ㄱ. 120Hz 음은 100Hz 음보다 천천히 소멸할 것이다.
- ㄴ. 소리의 진동 에너지는 공기와의 마찰로 소모된다.
- ㄷ. 진동수 차이가 없는 두 음파 간에는 맥놀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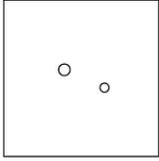
40.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현상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 ② 현상의 발생 원인을 과학적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③ 현상의 발생 과정을 역사적 단계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 ④ 현상에 대한 대립된 학설을 제시한 후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⑤ 필자의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현상의 미적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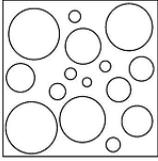
41. <보기>는 [A]에 나타난 현상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은?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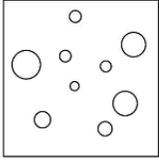
(ㄱ)



(ㄴ)



(ㄷ)



※ 그림의 '원'은 크기가 클수록 고주파임을 나타낸다.

- ① (ㄱ) → (ㄴ) → (ㄷ)
- ② (ㄱ) → (ㄷ) → (ㄴ)
- ③ (ㄴ) → (ㄱ) → (ㄷ)
- ④ (ㄴ) → (ㄷ) → (ㄱ)
- ⑤ (ㄷ) → (ㄱ) → (ㄴ)

42. ㉠을 우리말로 바꾸기 위해 사전에서 <보기>와 같이 '맞추다' 항목을 찾아보았다. 문맥상 ㉠의 의미에 가장 가까운 것은?

< 보 기 >

맞추다 ㉠

- ㄱ. 서로 떨어져 있는 부분을 제자리에 맞게 대어 붙이다. ¶ 문장을 문틀에 맞추다.
- ㄴ. 둘 이상의 일정한 대상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여 살펴다. ¶ 나는 가장 친한 친구와 답을 맞추어 보았다.
- ㄷ. 서로 어긋남이 없이 조화를 이루다. ¶ 다른 부서와 보조를 맞추다.
- ㄹ. 어떤 기준에 틀리거나 어긋남이 없이 조정하다. ¶ 시계 바늘을 5시에 맞추다.
- ㅁ. 열이나 차례 따위에 똑바르게 하다. ¶ 줄을 맞추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43~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하사(夏詞) 2

년덥희 밥 싸두고 반찬오란 장만 마라
 달 드러라 달 드러라
 靑靑薔약笹립은 씨 잇노라, 綠綠蓑사衣의 가져오나
 至지芻국恣총 至지芻국恣총 於어思사臥와
 無무心심흔 白백鷗구 는 내 좃는가 제 좃는가

추사(秋詞) 1

㉠物를外외에 조흔 일이 漁어父부 生生涯에 아니러나
 비 떠라 비 떠라
 漁어翁을 운디 마라, 그림마다 그렸더라
 至지芻국恣총 至지芻국恣총 於어思사臥와
 四스時시興흥이 혼가지나 秋秋江강이 음듬이라

-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

(나)

이등에 시름 업스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이로다
 일엽편주(一葉片舟)를 ①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②인세(人世)를 다 니젓거니 날 가는 줄로 안가

구버는 ③천십녹수(千尋綠水) 도라보니 만첩청산(萬疊靑山)
 십장홍진(十丈紅塵)이 연매나 ㄹ렛는고

④강호(江湖)에 월백(月白)호거든 더욱 무심(無心)호애라

- 이현보, 「어부가(漁父歌)」 -

(다)

약속 시간이 다 되어 급히 가는데 이상하게도 계속 파란 신호등이다. 내가 탄 버스도 신호등에 한 번도 안 걸리고, 내가 건너야 할 횡단보도 앞의 [신호등]도 기다리기라도 한 듯 파란 불로 바뀌어 약속 시간에 늦지 않게 도와준다. 그렇지만 살아가는 동안 어찌 내 앞에 파란 불만 켜지겠는가?

인생도 신호등과 다를 게 없다. 파란 불도 켜졌다 빨간 불도 켜졌다 하니 그렇다. 어쩌면 빨간 불이 켜졌을 때가 더 많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인생살이가 어려운 것이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신호등 앞에서 서성대야 한다. 좋은 일이 생기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금세 잊을 수도 있지만, 속상한 일은 오래 간다. 삶이 빨간 신호등에 걸리면 신호등을 기다리기가 매우 지루하다.

그러나 빨간 신호등 앞에서 침착하게 그 동안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 횡단보도 앞의 신호등에 빨간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빨간 신호등은 예견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간 불이 켜지면 예상 밖의 일이라면서 망연자실한다. 안절부절못하고, 분해서 어쩔 줄을 모른다. 사람들은 파란 불이 켜져 마음 편안히 살 때에는 고마움을 모르고 지나친다. 그러니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떡해야 할지 모르는 게 당연한지도 모른다.

빨간 신호등 앞에서 파란 불이 들어오길 기다리듯이,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파란 신호등이 켜질 날을 기다려야 한다. 서두르면 파란 신호등은 좀처럼 켜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열심히 노력하여 극복해야 한다. 아픔은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게 아니다. 누구보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찾아온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도 있듯이, 철부지에게는 아픔이 특효약이 되는 것이니, 아픔이 찾아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신호등처럼 내 삶도 공평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파란 불도 들어왔다가, 빨간 불도 들어왔다가 하니까. 생각해 보면 내게는 파란 불이었을 때가 대부분이었다. 아버지는 위를 보고 살면 불행하니 아래를 보고 겸손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아래를 보고 살아서인지, 파

란 신호등이 내 곁에 함께 하고 있음을 느낀다. 물론 나에게도 빨간 불이 켜졌을 때가 있었다. 대학 입시에 실패했을 때 그랬고, 국가 고시에 실패했을 때 그랬고, 입사 시험에 실패했을 때 그랬고, 그 밖에도 여러 일들이 불그레하게 내 앞에 펼쳐지곤 했었다. 그렇지만 파란 불이 더 강하게 나를 지켜 주었다. 내게는 할머니가 파란 신호등이 되어 주었다. 고마울 따름이다. 그들 중에서 누구라도 불행해지면 나에게 빨간 불이 들어올 것이다.

내 신호등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인생에 있어 파란 불이든 빨간 불이든 그 불은 모두 내가 만드는 것이다. 파란 불이기만 바라도 안 된다. 그것은 혼자만 잘 살겠다는 욕심이기 때문이다. 파란 불이 켜지면 켜지는 대로, 빨간 불이 켜지면 켜지는 대로 순응할 줄 알아야 한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희로애락을 다 겪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늘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 홍미숙, 「신호등」 -

4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다)의 화자는 자신의 감정을 자연물에 담아 표현하고 있다.
- ② (가)와 (나)의 화자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③ (가)와 (다)의 화자는 자연 친화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다)의 화자에 비해 인간들 사이의 유대를 중시하고 있다.
- ⑤ (나)와 (다)의 화자는 인종(忍從)의 삶을 중시하고 있다.

44. [백귀]와 [신호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백귀'와 '신호등'은 모두 세속적 가치를 상징한다.
- ② '백귀'는 과거지향적 삶을, '신호등'은 미래지향적 삶을 상징한다.
- ③ '백귀'는 시각적인 심상이, '신호등'은 청각적인 심상이 두드러진다.
- ④ '백귀'는 화자의 욕심 없는 삶을 드러내며, '신호등'은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⑤ '백귀'는 현실에 집착하는 화자의 성격을 드러내며, '신호등'은 현실을 개혁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다.

45. <보기>는 (가)를 쓰게 된 계기를 적은 글이다. 이를 참고하여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우리나라에는 오래 전부터 어부사(漁父詞)가 있었는데,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옛날의 시를 모아서 만들어낸 것이다. 이것을 읊조리면 강 위에 부는 바람과 바다에 내리는 비가 입 속에서 저절로 생겨나며,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버리고 홀로 서려는 뜻을 갖게 한다. 이러한 까닭에 농암 이현보도 좋아하여 싫증을 느끼지 않았고, 퇴계 이황도 감탄하여 즐겨 불렀다.

그러나 옛것을 모으는 데만 신경을 쓰다 보니 음향이 서로 통하지 않고 말과 뜻이 제대로 호응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리하여 나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우리말'을 사용하여 이 작품을 지었는데, 사계절을 각각 1편으로 하고, 1편을 다시 10장으로 구성하였다.

- 『고산유고』 권6 -

- ① (가)는 농암과 퇴계의 현실 비판 정신을 계승한 작품이군.
- ② (가)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어부사'를 기반으로 만든 것이군.
- ③ (가)는 원래 사계절을 소재로 한 총 40수의 연시조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가)와는 달리 예전부터 전해오던 '어부사'는 작가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군.
- ⑤ <보기>의 '우리말'은 '달 드러라 달 드러라'와 같은 표현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군.

46. ㉠~㉣ 중, 의미하는 바가 다른 것은? [1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47. [A]의 의미를 드러내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화위복(轉禍爲福)
- ② 청출어람(靑出於藍)
- ③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 ④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 ⑤ 일일신우일신(日日新又日新)

[48~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늑대와 춤을」이라는 영화를 인디언 사회에서의 이름 붙이기를 보여준 작품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영화에서, 늑대와 춤을 추듯 노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늑대와 춤을’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이름 붙이기는 너무 즉흥적으로 보이지만 한 공동체에서 그 구성원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라는 점에서는 우리의 이름 붙이기와 다를 바가 없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인디언들은 사건을 지시하는 문장을 곧바로 이름으로 사용하였고, 우리는 이를 명사형으로 바꿔 이름을 만든다는 것뿐이다.

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주몽’이었다. 주몽은 ‘활을 잘 쏘는 사람’에게 붙이는 이름이었다. 또한 백제 무왕의 어릴 적 이름은 ‘맛등’이었다. 그는 선화공주를 데려와 결혼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장사치가 되었다. 마를 팔면서 노래를 부르고 다녔고, 선화공주를 데려올 계책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그에게 ‘맛등’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다. ‘맛등’은 ‘마를 파는 사람’이라는 의미였다. 지금이야 그런 이름을 짓는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어떤 특성이 곧바로 이름이 되어 버린 경우가 자주 있었다. ‘돌쇠’는 ‘돌처럼 단단하게 생긴 사람’에게, ‘먹쇠’는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붙는 이름이었다. 결국 사람의 특성이나 역할을 그 이름으로 삼은 것은 작은 공동체에서 한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 짓는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 인디언 사회에서 ‘늑대와 춤을’과 같은 이름을 찾기 힘든 것처럼, 공동체의 삶의 양식이 변하면 이에 따라 이름 붙이는 관습도 함께 변화를 겪게 된다.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우리 주변에는 ‘주몽’, ‘맛등’, ‘돌쇠’, ‘먹쇠’ 등과 같이 사람의 특성이나 역할을 표시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드물다. 이러한 변화는 삶의 양식이 변하는 것과 깊은 관련을 맺는다.

유교적 전통 안에서 혈연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면서, 이름은 서열을 나타내는 중요한 징표가 되기도 하였다. 처음 만난 친척도 그 이름만 들으면 그 사람과의 서열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항렬을 정해 이름자를 정하는 것도 우리의 전통이 ㉠되었다. ‘철수’, ‘민수’, ‘영수’ 등과 같은 예의 이름이 많은 것은 이러한 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특징이나 역할과 상관없이 서열을 표시하는 글자를 중심으로 이름을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이름 붙이기는 서구적인 문화 양식이 자리 잡아 가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한편에서는 서열에 따른 이름 붙이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름의 미적인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초롱’, ‘아름’, ‘어진’ 등 고유어 이름이 확산되는 것도 이름의 양식을 변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양상은 서구식 발음 구조가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로마자 표기의 단순화를 고려해 발음을 단순화하고, 받침이 없는 단어를 선호하며, 받침이 있더라도 ‘ㄱ, ㅂ’보다는 ‘ㄴ, ㄹ’ 등을 선호하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 예라 할 수 있다.

48. 위 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구적인 문화 양식은 현재 우리의 이름 양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
- ② 인디언 사회에서 이름 짓기는 구성원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었다.
- ③ 이름을 붙이는 관습이 변하면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양식도 함께 변한다.
- ④ 서열 관계를 중시한 이름 짓기는 유교적 전통이 있는 혈연 공동체에서 사용되어 왔다.
- ⑤ 과거에 우리 민족은 공동체 내에서 사람들을 구별하려고 사람의 특성으로 이름을 지었다.

49. 위 글에 나온 ‘이름 짓기’ 유형에 따라 지은 이름이 아닌 것은?

- ① 얼굴이 고와서 ‘곱단’
- ② 몸집이 크고 튼튼해서 ‘우람’
- ③ 우리 말을 잘 살려서 쓴 ‘다솜’
- ④ 형제인 ‘대한(大韓)’과 ‘민국(民國)’
- ⑤ 사촌 형제인 ‘영주(英柱)’와 ‘동주(東柱)’

50. 의미상 ㉠과 유사한 것은?

- ① 요즘은 사업이 그럭저럭 되고 있다.
- ② 그에게 그녀는 삶의 목표가 되었다.
- ③ 우리 국토의 대부분은 산으로 되어 있다.
- ④ 이 안(案)에 찬성하는 사람이 50명이 되었다.
- ⑤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라.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